200만 비소세포폐암 환자 위해 신약개발 머리 맞댄다

SK바이오팜 美 '투자아'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AI 활용 신약개발 효율성 극대화 나서

SK바이오팜 항암연구소장 맹철영 상무(오른쪽)와 투자아 앤드류 A. 레이딘 대표이사가 비소세포폐암 치료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회사 투자아(twoXAR)와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폐암은 전세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암 종류 중 하나로, 5년 생존율이 18% 미만이다.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크게 소세포 폐암(small cell lung cancer)과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로 구분되는데 전체 폐암 환자의 약 85% 정도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2018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200만 명이 추가로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투자아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 기반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텍이다. 양사 간 계약에 따라, 앞으로 투자아社는 새로운 생물학적 기전을 통해 폐암 치료 가능성이 높은 신약 후보물질 발굴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다. 이후 SK바이오팜은 구축되어 있는 '인공지능 약물설계 플랫폼'을 통해 최적화 작업, 약효 및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팜의 인공지능 약물설계 플랫폼은 2018년에 구축 완료했으며 '약물특성 예측'과 '약물설계' 모델로 이뤄져 있다. SK바이오팜 고유 연구 데이터와 연구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학습, 예측을 뛰어 넘어 물질특허가 가능한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하는 독보적인 시스템이다.

SK바이오팜 항암연구소장 맹철영 상무는 "AI를 기반한 기술은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새롭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투자아와 SK바이오팜의 AI 기술과 연구 역량이 결합하면, 이전보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투자아의 공동 설립자 겸 대표이사인 앤드류 A. 레이딘은 "사망률이 높은 암 종류 중 하나인 폐암은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다"며 "양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빠르게 신약을 발굴,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SK바이오팜은 앞으로도 그 동안 축적된 R&D 역량을 토대로 신약개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최신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달 말 '수족구 환자' 증가 예상 "실외활동 후 손 깨끗이 씻으세요"

질본, 개인 위생수칙 준수 당부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건당국이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등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4월 말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고, 실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전체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수는 13주(3.24.~3.30.) 1.8명, 14주(3.31.~4.6.) 2.4명, 15주(4.7.~4.13.) 2.5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대변,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집기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질본은 수족구병 감염을 막기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을 씻고, 장난감 등 집기 소독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증상 발생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 발열과 함께 손,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등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등원 및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세 경기자

어린이 과채음료 절반, 당류 기준치 초과

식약처, 국내 유통 334개 음료 조사 과채음료 40개만 식약처 인증 받아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과일·채소 음료 절반의 당류가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국내 유통되는 과채음료 334개에 대한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그 중 170개가 당류 평균 함량이 1회 섭취참고량당 22.9g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과일·채소 음료의 경우 200mL당 당류 함량은 17g 이하여야 되고 그 기준을 초과하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푸루타렐리오리지날맛

특히, 수입제품 중 '푸루타렐리오리지날맛'의 당류 함량이 1회 섭취참고량당 40g으로 가장 높았고 국내 제조 제품은 '자연은 블루베리'가 30g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음료 중 식약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40개에 불과했다. 식약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 건강에 유익한 영양성분 2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고 당류 함량도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비해 낮았다.

덕성여대 김건희 교수(식품영양학과)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탄산음료, 과채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등에는 당류 또는 포화지방 함량 등이 높아 많이 먹으면 비만 등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간식을 선택하실 때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어린이가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로 품질인증제품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을 계속해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키자니아 '가그린 치과'서 의사 됐어요"

동아제약, 어린이 직업체험 실시

동아제약은 서울, 부산 지역 어린이들을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로 초대해 어린이 직업체험 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키자니아 직업체험 활동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동아제약은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11회), 부산(3회) 어린이 각각 300여 명을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로 초대했다.

초대받은 어린이들은 키자니아 서울과 부산 '동아제약 가그린 치과'에서 치과의사가 되어 충치와 잇몸질환을 겪는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한 치아를 위한 구강 관리법을 배웠다. 또한, 경찰관, 외교관,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갔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의 동아제약 가그린 치과에서 어린이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2014년 키자니아 서울 가그린 치과, 2016년 키자니아 부산 가그린 치과를 열어 연 2회씩 어린이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최일주 국립암센터 교수, 보령암학술상 수상

보령제약과 한국암연구재단이 공동 제정 시행하고 있는 보령암학술상 제18회 수상자에 국립암센터 최일주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최 교수는 조기위암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치료가 위암 예방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등 전세계 위암 예방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9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진행되며, 최교수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

최 교수는 최근 3년간 국내외학술지에 총 46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중 제1저자 겸 책임저자로 NEJM에 위암 치료 후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하면 위암 재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1350명의 조기위암 환자 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양성인 396명을 제균약 또는 위약 투여 후 위암 발생 및 위축성 위염 호전여부를 2016년까지 추적 관찰한 것으로 최장 12.9년(중앙값 5.9년) 추적관찰 결과, 제균약을 복용한 그룹 194명 중 14명(7.2%)에서, 위약을 복용한 그룹 202명 중 27명(13.4%)에서 위암이 각각 새롭게 발생했다. /이세경 기자

배재문 삼성서울병원 교수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취임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위장관외과 배재문 교수(사진)가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1년 4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위암학회는 1993년 연구회로 시작하여 1996년 정식 학회로 출범했다. 2014년부터 연차 정기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KINGCA)'로 확장,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JGC(Journal of Gastric Cancer)가 SCIE에 등재되었다.

배 교수는 2007년 대한위암학회 학술위원을 시작으로 홍보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 겸 KINGCA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보직을 맡으며 꾸준히 활동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